

2018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8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 <자료>를 보고 ‘-아/어’가 결합된 용언의 구성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자 료>

국어에서는 2개 이상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 2개의 동사가 ‘-아/어’에 의해 결합한 구성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본동사와 본동사가 결합한 구성, 둘째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가 결합한 구성, 셋째는 통사적 합성어인 경우이다. 이들 3가지 구성은 ‘-아/어’와 ‘-아서/어서’의 대치 가능성, 본동사 원래 의미의 유지 여부, 새로운 단어 형성 여부 등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 a. 삼촌은 가방을 ㉠ 만들어 팔았다.
b. 그 합창곡은 나도 여러 번 ㉡ 들어 보았다.
- a. 휴지통에 종이를 ㉢ 구겨 버렸다.
b. 발표자는 반론의 가능성을 ㉣ 막아 버렸다.
-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만 ㉤ 잡아먹었다.

<작성 방법>

- ‘-아서/어서’와의 대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과 ㉡이 위에 제시한 3가지 구성 중 어느 구성에 해당하는지 각각 서술할 것.
- ㉢, ㉣에서 ‘버리다’의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지를 밝혀 각각이 본동사와 보조 동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서술할 것.
- ㉤을 붙여 쓴 이유를 ㉠~㉣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2. 다음을 읽고 사실시조의 형식적 특성과 화자의 태도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가)

어이 못 오던다 므스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우회 ㉠ 무쇠로 城을 뚫고 城 안해 담 뚫고 담 안해란 집을 짓고 집 안해란 두지 노코 두지 안해 橫를 노코 橫 안해 너를 結縛하여 너코 雙비목 외결새에 龍 거북 즘믄쇠로 수기수기 줍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훈 들이 설흔 날이여니 날 보라 올 흘리 업스랴

(나)

天寒코 雪深훈 날에 님 츠즈라 天上으로 갈제

신 버서 손에 쥐고 보선 버서 품에 품고 ㉡ 곰뵈뵈뵈 뵈뵈 뵈뵈 천방지방 지방천방 훈번도 쉬지 말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보선 버슨 발은 아니 스리되 념의온 가슴이 산득산득 흐여라

<보 기>

사실시조의 형식적 특징 중 하나는 병렬을 통한 장형화라 할 수 있다. 병렬은 의미론적 지향이 동일한 두 가지 이상의 통사 형식이 나란히 놓이는 방식으로, 통합적 병렬과 계열적 병렬로 나눌 수 있다. 통합적 병렬은 의미상 또는 행위의 축에서 연쇄성을 지니거나 단계성을 가지는 것을 뜻하며, 계열적 병렬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어구가 나열·반복되는 것을 뜻한다.

<작성 방법>

-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나타난 병렬의 차이점을 서술할 것.
- (가), (나)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할 것.

3.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 차려서,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때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뿐더러 이진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어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치 가서,

“제—미 키두!”

하고 논둑에다 침을 튼, 뺏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넘을락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돼지는 폭폭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던졌던지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서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놓고 고사드립죠포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돼먹은 낀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밍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무 먹은 걸 모르고 내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 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켜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뜨리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

파릇 돋아 오른 풀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 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눈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더니 잡은참 내 먹살을 움켜 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

“이 자식아,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속셈이나? 이 대가릴 까눌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자식 저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짧다 한다.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둘러세워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중략)…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담판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뺨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러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발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봉, 봉, [A]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 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이러이! 말이! 맘 마 마 —”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 김유정, 「봄·봄」

<작성 방법>

- ‘장인’에 대한 ‘나’의 이중적 태도를 작품에서 근거를 찾아 서술할 것.
- ㉠의 이유를 [A]와 ‘나’의 처지를 관련지어 서술할 것.

4. 다음을 읽고 작품 속 인물들의 삶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A]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힘한 땅에서 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뉘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혈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총을 안고 빨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 하나씩의 별

- 이용악, 『하나씩의 별』

(나)

진고개 너머 어떤 일본집에 수속 없이 제 집처럼 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식 수속을 밟아 내어쫓고 들어가게 해준다고 부디 오늘 오정 안으로 만나자는 친구가 있다. 집이 없어 한지에서 겨울을 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으슬하다가도 그러니 있는 사람을 내어쫓고 들다니 생각을 하면 내어쫓긴 사람이 역시 자기와 같은 운명에 놓여질 것이 아니 근심일 수 없다. 자기도 처음 서울에 짐을 푼 것은 한지가 아니었다. 푸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일본집 다다미방 한 칸이 베풀어지는 호의를 힘입어 겨울을 나게 되었음은 다행이었다 할까. 해춘도 채 못미처 수속이 없다 나가라 하여 쫓겨난 이후로 이래 아홉 달을 한지에서 산다. 남을 한지로 몰아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눈을 감을 염치가 없다. 이런 기회는 몇 번이고 있었다. 비로소

듣는 이야기가 아니요 받아 보는 호의가 아니다. 일언에 거절을 하였더니,

“이 사람아, 고양이 쥐 생각두 푼수가 있지 그런 맘 쓰다가는 이 세상에선 못 사네.”

친구는 어리석은 생각임을 비웃는다.

“그런 얌전만 피다가는 자네 금년 겨울에 동사하네, 동사.”

아닌 게 아니라 듣고 보니 그것이 말만이 될 것 같지도 않다.

[B]

“글쎄, 그 사람이 쫓겨 나왔어두 집을 잠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흥, 아, 그럼 자네처럼 제 집 없으면 한디에서 겨울 날 줄 아나. 그저 별생각 말구 눈 딱 감구 내 말만 듣게. 집이 생길 게니.”

친구는 승낙도 없는 상대방의 의견을 임의로 무시하며 혼자 약속을 하고 갔다.

…(중략)…

낮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부리에 닳인다. 거리가 비좁게 발부리를 닳는 무리들, 허구한 날을 이렇게도 많을까. 겨레도 모르고 양심에 눈감은 무리들은 골목마다에 차고, 땀으로 시간을 삭이는 무리들은 일터마다에 찼다. 차고 남아 거리로 범람하는 무리들이 이들의 존재라면 ‘반편이야 태만 길러서’의 축에 틀림없다.

이 반편의 축들은 다들 밤이면 별을 세다가 오라는 데도 없는 걸음이 이렇게도 싱겁게 배바쁜 것일까. 언제까지나 ㉡ 싸늘한 별을 가슴에다 부둥켜안고 세어야 태 속에서 벗어나 거리에의 정리에 도움이 될까.

- 계용묵, 『별을 헨다』

<작성 방법>

- [A]의 ‘사람들’과 [B]의 ‘친구’의 삶의 방식을 비교하여 서술할 것.
- ㉠, ㉡을 중심으로 (가)에서 별을 쳐다보는 행위와 (나)에서 별을 세는 행위가 갖는 의미의 차이를 서술할 것.

5.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가)

노고(老姑)가 답 왈,

“상공이 이렇듯 물으시니 대강 고타리이다. 우리 상전은 유 승상이시니, 승상 노야가 황성에서 벼슬하시더니, 천자께 득죄하고 이곳에 오신 후에 정실부인 최씨 다만 일녀를 낳으시고 삼 일만에 기세하시니, 노야가 후실 노씨를 얻으 시매, 노씨가 불인(不仁)하여 소저를 죽이려 하여 죽에 약을 주니, 천지신명이 도우사 홀연 바람이 일어나 죽에 티끌이 들매, 인하여 먹지 않고 개를 주니 그 개가 먹고 즉시 죽거늘, 그 후는 놀라 밥을 제 집에서 수건에 싸다가 연명하였으며, 길례(吉禮)날 밤에 노씨가 제 사촌 노태를 금을 주고 달래어 칼을 가지고 와 작란(作亂)하니, 정 시랑이 그 거동을 보고 의심하여 밤에 돌아갔으며, 소저가 분원(忿怨)하여 자처*하매, 염습코자 하나 사나운 기운이 사람을 침노하니 인하여 빈소에 가까이 가지 못하였더니, 그 후에 소저의 원혼이 공중에서 울매, 동리 사람들이 그 곡성을 들은 자면 병들어 죽으니 견디지 못하여 집을 떠나 타처로 거접(居接)하되, 우리는 관계치 아니키로 이곳에 있사온즉 소저가 밤마다 울고 오나 이다.”

하고 인하여 혈서 쓴 적삼을 내어 놓으니, 어사가 바라보매 놀라고 몸이 떨려 방성대곡하다가 이윽고 진정하여 주인더러 왈, “내 과연 정 시랑이니, 사세여차(事勢如此)한즉 어찌 하리오? 내 불명하여 여자의 원(冤)을 끼치니 후일 반드시 양화(殃禍)를 받으리로다.”

유모 부처가 이 말을 듣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붙들고 방성대곡 왈,

“시랑 노야가 어찌 이곳에 오시니잇고?”

(나)

어사가 왈,

“어찌하면 낭자가 다시 살아날꼬?”

소저가 답 왈,

“첩을 살리려 하시거든 금성산 옥륜동을 찾아가 금성진인(金星真人)을 보고 약을 구하여 오시면 첩이 회생하려니와 상공이 어찌 가 구하여 오심을 바라리잇고?”

어사가 기꺼 즉시 유모를 분부하여 행장을 차리라 하여, 유모 부처를 데리고 길에 올라 여러 날 만에 옥륜동에 이르러 기구한 산천을 넘어 도관을 찾되, 운무가 자욱하여 능히 찾을 길이 없는지라. 마음에 초조하여 두루 찾더니, 한 곳에 이르니 일좌(一座) 묘당(廟堂)이 있거늘, 들어가 보니 인적이 없어 티끌이 자욱하거늘, 두루 찾다가 하릴없어 도로 나오더니, 묘당 앞 큰 나무 아래 한 구슬 같은 것이 놓였으니, 빛이 찬란하고 향취가 웅비하거늘, 이상히 여겨 집어 몸에 감추고 이에 묘당을 떠나 유모 부처를 데리고 산과 고개를 넘어 두루 찾으니, 들어 갈수록 첩첩한 산중이요 능히 사람을 볼 길이 없는지라. 하릴

없어 이에 산에서 내려와 촌점을 찾아 밤을 지내고, 익주로 돌아와 소저 빈소로 들어가니, 소저가 반겨 왈,

“상공이 약을 구하여 오시니잇가?”

어사가 답 왈,

“슬프다. 약도 못 얻어오고 다만 행력만 허비하니이다.”

소저가 왈,

“상공의 몸에 기이한 광채가 비치니, 무엇을 길에서 얻지 아니하시니잇가?”

어사가 왈,

“이상한 ㉠ 구슬이 있기로 가져오니이다.”

소저가 왈,

“그것이 회생하는 구슬이니 첩이 살 때로소이다.”

하고 다시 말을 얹으니, 어사가 그 구슬을 소저의 옆에 놓고 소저와 동좌(同臥)하여 자다가 놀라 깨니 동방이 밝았는지라.

일어나 보니 구슬 놓였던 곳에 살이 연지빛같이 내살았거늘, 그제야 신기히 여겨 유모를 불러 뵈고, 구슬을 소저의 몸에 구울리니, 불과 하룻밤 사이에 살이 윤택하여 붉은 빛이 완연하고 옛 얼굴이 새로운지라. 반감을 이기지 못하여 익주자사에게 약을 구하여, 일변 약물로 몸을 씻기고 약을 먹이니, 자연 환생(還生)하여 인사를 차리는지라.

- 「정을선전」

* 자처(自處): 자결(自決)과 유사한 의미임.

<작성 방법>

- (가)에서 유 소저가 원혼이 된 이유를 노씨의 행위, 정 시랑의 행위를 중심으로 각각 서술할 것.
- ㉠의 기능을 유 소저와 정 시랑의 입장에서 각각 서술하되, (나)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쓸 것.

6. (가)는 김 교사가 세운 수업 계획이고, (나)는 수업 계획에 대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김 교사의 쓰기 지도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가)

- 학습 목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쓸 수 있다.
- 쓰기 과제: 우리 학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글을 써 봅시다.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글을 써야 하는지 친구들과 협의하여 글을 씁니다.
- 평가 계획: 포트폴리오 평가(2차)
- 수업 단계 및 교수·학습 활동(90분)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 전시 학습 확인 및 동기 유발 - 학습 목표 확인
미니레슨 (간이 수업)	-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의 특성 설명하기 -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제시하는 방법 안내하기
계획하기	- 쓰기 맥락 분석하기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 해결해야 할 문제 조사하기 - 문제 해결 방안 마련하기 - 내용 조직하기
글쓰기	- 초고 쓰기 - 피드백 반영하여 재고 쓰기
공유하기	- 완성된 글을 작은 책이나 게시물로 만들기
정리	- 쓰기 워크숍 활동 정리

(나)

윤 교사: 김 선생님, 지난번 쓰기 워크숍 잘 마치셨나요?
 김 교사: 예, 잘 마치기는 했는데 쓰기 워크숍이 익숙하지 않아 좀 어려웠어요. 2회 차 수업 계획인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윤 교사: 그럴게요. 그런데 처음에 쓰기 워크숍을 계획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김 교사: 지난여름에 교사 연수를 받기 전까지 ㉠ 쓰기는 필자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쓰기에 대한 제 관점이 편협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윤 교사: 그랬군요. 쓰기 워크숍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김 교사: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자신이 완성한 글을 들고 뿌듯해하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공유하기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더 추가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윤 교사: 쓰기 워크숍은 '실제적 쓰기',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쓰기'를 지향하니까, ㉡ 공유하기 단계에서 자신이 쓴 글을 학교 신문에 투고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 교사: 지난번에 1차 포트폴리오 평가를 했고, 이번에 2차 포트폴리오 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 예전에는 완성된 글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적으로 평가했는데,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교사: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교수·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하략) ...

<작성 방법>

- ㉠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쓰기 워크숍의 의의를 서술할 것.
- 쓰기 워크숍이 '실제적 쓰기(authentic writing)'를 지향한다고 할 때, 김 교사가 제시한 쓰기 과제와 ㉡의 활동이 적절한 이유를 각각 서술할 것.
- ㉢을 고려할 때 김 교사의 쓰기 워크숍 수업에서 포트폴리오 평가가 갖는 장점 2가지를 서술할 것.

7. <보기 1>은 중세 국어 인칭대명사의 쓰임을 이해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이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학습 결과의 일부이다. <보기 1>과 <보기 2>를 바탕으로 높임의 여부에 따른 중세 국어 ‘나’, ‘저’, ‘즈갸’의 쓰임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보기 1>—

- (1) ㉠ 大王하 엇더 나를 모르시느니잇고
 ㉡ 一切 報施를 나미 뜯 거스디 아니흐거늘 내 마를 다 드를따
- (2) ㉠ 衆生이 기운 보므로 제 써디엿거든 聖人도 뉘마다 아니 나시느닷 쓰디라
 ㉡ 六師ㅣ 겹구오려 흐거든 제 흘 양으로 흐라 흐더이다
- (3) ㉠ 부테 드르시고 즈개 阿難이 드리시고
 ㉡ 地藏이 如來스괴 즈갸 功德 슬복샤

—<보기 2>—

인칭대명사	학생들의 탐구 결과 중 잘못된 내용
나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문장에서만 1인칭 대명사로 사용함.
저	상대방을 높이는 문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함.
즈갸	3인칭 주어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에는 항상 사용함.

—<작성 방법>—

- <보기 2>의 잘못된 탐구 결과를 바로잡아 중세 국어 ‘나’, ‘저’, ‘즈갸’의 쓰임을 서술할 것.
- 중세 국어의 ‘저’와 ‘즈갸’가 사용될 환경에 나타나는 현대 국어 대명사 형식 각각을 포함시켜 서술할 것.

8. 김 교사는 요약하기 규칙을 적용하여 요약문을 만들고 이를 발표하기에 활용하는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보기 1>은 김 교사가 마련한 학습지이고, <보기 2>는 한 학생이 제출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김 교사의 수업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하시오. [10점]

<보기 1>

2학년 ___반 _____

※ 다음 글을 읽고 요약하기 활동을 해 보자.

화폐와 경제생활

① 화폐는 재화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화폐의 출현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가치의 축적'이라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초래했다. 즉,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치를 축적하는 것이 쉬워진 것이다.

② 소, 돼지, 양이나 물고기, 조개 같은 것들은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곧 부패하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러한 것을 아무리 많이 획득하여도 오랫동안 축적해 둘 수 없었다. 또 비교적 쉽게 부패하지 않는 쌀, 보리, 밀, 수수와 같은 것도 축적해 두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리고 공간이 아무리 넓고 커도 축적할 수 있는 총량에 한계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여 많이 축적해 둔다고 해도 그 소유자는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약탈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③ 수렵 채취의 시대에는 그때그때 획득한 재화를 2~3일

<학습 활동>

1.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구분	요약문	비고
①		50자 내외
②		150자 내외
③		150자 내외
④		150자 내외
⑤		50자 내외

2. 1을 바탕으로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구분	요약문	비고
처음 ①		50자 내외
중간 ②③④		300자 내외
끝 ⑤		50자 내외

3. 2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4. 1~3에서 요약한 내용을 활용하여 <말하기 상황>에 알맞게 발표하여 보자.

<말하기 상황>

- 화제: 화폐와 경제생활
- 목적: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 청중: 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급 친구들

<보기 2>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재화를 축적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육류나 어패류는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부패하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축적해 둘 수 없었다. 쉽게 부패하지 않는 곡물도 축적해 두려면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총량에 한계도 있고, 약탈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작성 방법>

- 서론과 결론은 생략하고, 본론은 세 문단으로 구성하여 쓸 것.
- 본론의 1문단은 김 교사가 요약하기 활동을 학습 활동 1~3과 같이 구성한 의도를 글의 구성단위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
- 본론의 2문단은 요약 규칙 중 '일반화(대치) 규칙'과 '재구성 규칙'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보기 2>의 요약문에서 두 규칙이 적용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쓸 것.
- 본론의 3문단은 학습 활동 4에서 청중 특성을 고려한 '도입부'의 내용 구성에 대한 지도 내용을 2가지 쓸 것.

<수고하셨습니다.>